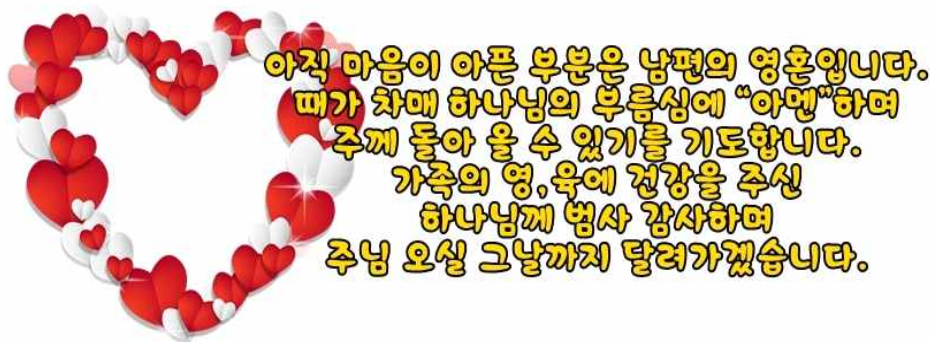


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시 73:28)

NEW
순복음Life
제66호

발행일 : 2021.10.10.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원
재
옥
권
사
님



<간증>

원재옥 권사

간증이라는 것을 글로 적어보려고 하니 어찌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집사님의 부탁에는 단번에 “예” 라고 대답을 하고요. ㅠ ㅠ ㅠ

샬롬 !!!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에 가족들의 건강을 다시금 확인하며 더욱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년 전 남편의 급성당뇨로 당 수치가 500이상 넘는 결과와 결핵 의증으로 분당 서울대에 15여일 입원하고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여 약 8개월 동안 인슐린 주사와의 전쟁이 우리 집에는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이 많이 있지 않은 몸인데 주사 바늘을 하루에 두번씩 배 주변을 중복되지 않도록 네임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주사를 맞는 힘든 시간 ~ ~) 그 후 남편은 잘 이기고 건강을 챙겨 약으로 전환하여 당뇨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와 약을 적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당뇨 환자로 치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남편의 치아에 뼈 이식 등의 힘든 과정들이 남아 있으나 능히 이기고 잘 이식되기를 바라며 치과 치료가 잘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갑자기 걸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디스크 협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시술을 받고 약 3개월이 지나서야 회복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후 체중을 줄이는 운동 해야지 하는 마음은 들었으나 다시 디스크가 생길까봐 보류하고 올 여름에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다시금 일어나 아침마다 막내 진경이와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어렵기도 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의 동역자 진경이가 있어서 매우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른 시각 5시 30분에서 50분 사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하여 집에 들어오면 7시경 ~ ~ 8월부터 지금 약 2개월 그러다 보니 허리 아픈 것도 조금은 덜 아프고 몸이 좀 가벼워져서인지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토리 줍기를 오가며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도토리가 눈에 띄기 시작했고 진경이와 저는 재미있게 주워서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수확은 약 10k 정도 모은 듯 합니다.

하은이도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근무하고 하다 보니 위가 가끔 아프다고 했는데 그 또한 집밥을 먹으면서 좋아진 듯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심의 은혜입니다.

진희, 진경이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막둥이들이 열심히 엄마 따라 마을 일에 동참하는 착한 아이들 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은 수시 원서를 쓰고 기다리며 기도 중에 있는 쌍둥이를 보며 대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성전기도와 말 씀읽기, 워십연습, 찬양연습 등 열심히 주님의 일꾼으로 움직이는 이쁜 쌍둥이입니다.

진희는 3살이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열감기로 입원했던 일 외에는 아프지 않고 잘 자라 주어서 감사하고 있고요. 진경이는 5학년 2학기쯤 감기로 열린내과, 단국대 병원으로 입원 치료받았던 것 외에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장막을 작년에 이곳 면천면 아미산 자락으로 옮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마을에는 혐오 시설이 하나도 없고요.

진짜로 집 앞에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마을에 다람쥐가 보이고 족제비도 있고 지렁이도 많고 ~~~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 생활하면서 느끼지만 참 맑은 하늘, 맑은 새소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박을 한 번도 산적 없이 이웃 분들께서 주시는 수박으로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기도 소리, 신나게 워십을 하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우리 집! 이곳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이 아픈 부분은 남편의 영혼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의 영,육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범사 감사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1. 자신을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밀알 청년회에서 구역장을 맡고 있는 가경연 청년입니다.

2.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학교 4학년 졸업반 학생입니다. 요즘은 내년에 있는 국가고시 시험과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요즘 자신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무엇인가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취업은 할 수 있는지, 전공인 사회복지에서 어떠한 분야로 나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있답니다.

4. 항상 생각나는 참 좋은 친구 소개해 주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는 성도님들도 아시는 민애, 예원입니다.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이기도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주는 친구들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힘들 때 의지가 되는 가장 좋은 친구들입니다.

5. 성도님께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분이십니다♥

6. 지금까지 매우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거야~

7. 살면서 참 감사했던 그분에게 감사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길지 않은 22년의 인생이지만 가장 감사한 사람을 꼽으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오르네요. 23살의 경연이가 되기까지 바른길로 인도해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예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8. 내 인생에서 그때는 참 힘들었지 회상되는 그날은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고3 입시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고 싶은 학교 3곳 모두 탈락하고 신성대에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탈락 메시지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성전 뵙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들이 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9. 성도님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10. 올해 추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가까운 친척들과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11.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주의 귀하고 복된 자녀)이기 때문이다.

12.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경: 경연이의

연: 연약한 부분을 채워 주세요.

13. 자신이 꿈꾸는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외적으로는 키가 큰 사람 내적으로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입니다.

14. 주님은 성도님께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지 않으셨나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예쁜 눈을 주신 것 같습니다. ㅎㅎ 주시지 않은 것은 손재주입니다. 요리도 잘하고 싶고, 만들기도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15. 10년 후 이맘때쯤 성도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는 33살이 되었을텐데 아마 결혼도 하고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6. 주님께서 네 삶을 형통케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의 무엇이 형통해지길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졸업을 앞두고 있다보니 취업의 길이 형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17. 자신에게 30일의 무료 여행 티켓이 생긴다면 누구하고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가족들과 함께 스위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본 스위스의 자연경관을 보고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18. 요즘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성도님은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싶으신가요?

아이를 낳으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겠지만 저를 닮은 자녀들의 얼굴이 궁금해요. 그래서 예쁜 딸을 낳고 싶습니다.

19. 내 성격의 참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공감해주고 무슨 일에 앞장서기 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밀어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 나에게 천국은 (소망, 안식처)이다.



권찰일기

2021년 9월 16일

우리 가족은 다온이와의 돌 촬영을 위해 첫 제주 가족 여행 결심했다.

아이와의 첫 비행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1시에 잠들었던 어젯밤, 5시 반 출발을 위해 힘들지만 5시에 눈을 떴다. 다온이를 조용히 들쳐업고 갈 계획이라 30분만에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려는데 다온이가 일어났다. 당황스럽지만 아이를 깨워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에 감사하며 우리 가족과 하은이는 기도로 여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가는 내내 감사하게 다온이는 울지도 않고 2시간 동안 차를 잘 타주었다. 비행기를 못 탈까 봐 조마조마한 나는 차도를 잘 못 들어간 오빠에게 한마디씩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빠도 조금 마음이 상했다. 하지만 재촉한 내가 미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딱 알맞은 시간에 좋은 주차 자리로 인도해주셨다. 정말 감사했다. 도착 후 우리는 발권을 하고 순조로운 비행을 시작했다. 다온이는 아침을 차에서 먹고 놀다가 비행기 안에서 잘 자 주었다.

제주도 도착. 제주도 날씨는 흐렸고 곧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도착 후 갑자기 렌터카에서 입금문자(?)가 왔다. 우리는 다 입금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취소된 건 아닌지 여행 준비 중 렌터카 담당인 오빠가 초조해하기 시작했고 한 시간 반 정도 끝에 비도 맞으면서 렌터카를 탔는데 웬걸 또 카시트가 달리지 않았다. 렌터카의 실수였다. 렌터카 사무실에서 오랜 대기로 다온이와 씨름하면서 있던 나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무리하니 채움이가 힘들어하고 나도 체력이 너무 바닥났다. 우리의 여행은 많은 당황 속에서 시작되었다. 다온이는 차에서 바로 잠들었고 참 단순하지만 맛있는 점심으로 우리의 기분은 한결 나아졌다. 평소에도 말이 많은 우리 부부는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오는데 오빠가 '사실 날씨가 더 나빠져서 제주도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주도에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별로였고, 그리고 계속 힘든 일만 생기니 예전 같으면 다신 오지 말아야 겠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안 좋았어도 다시 한번 가볼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다.'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오빠의 말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다. 우리가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오빠의 고백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다.

오빠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나를 위해 사진 놀이터에서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숙소로 이동 후 잠든 다온이를 안고 숙소로 들어왔다.

온종일 긴장해서 힘들 것 같은 오빠에게 얼른 한숨 자라고 한 후 다온이를 기다렸다가 다온이가 일어난 후 오빠를 방으로 보낸 후 조금 더 쉬다 우리는 저녁으로 회를 먹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차 문을 열기 힘들 정도로 불어 오빠는 카페에서 포장해서 오자고 했지만, 또 고집부리면서 가고 싶다고 의견을 냈다. 오빠는 내키지 않지만 들어주었고 카페에서 조금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며 오빠를 보고 있으니 자신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을 1번으로 생각해주고 존중 주려고 하다 보니 하고 싶지 않고, 내키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견여내는 오빠가 지쳐 보여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나름대로 배려하고 오빠를 생각하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고맷다. 부부는 원래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배려해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인가?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그런 것 같다.

매번 행복하고 모든 부분이 딱 맞진 않지만, 오빠가 내 곁에 있어 줘서 좋다.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오빠에게 자주 '다시 태어나도 오빠를 만날 거야'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야식을 먹고 내일 비 오면 어찌지 걱정하는 오빠를 다독이며 다온이를 재우다 잠이 들어버렸다.

하나님 저희 부부를 하나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두 아이도 주셔서 가정을 세우게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찬양 드립니다.

- 유혜진 권철-

<유초등부 소식>

9월 곡식이 익어 가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 우리 친구들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며 지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 ‘도전 1000곡’~~을 진행해야 했지만 짧아진 3부 순서 시간으로 인해 ‘도전10곡’으로 바꾸어서 진행했습니다. 짧은 음을 듣고 제목을 맞추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골라 듣느냐에 제목을 금방 맞추기도 한참을 헤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찬양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제목을 맞췄고 즐거운 모습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둘째 주엔 ‘퀴즈 빙고빙고’라는 게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판에 숫자를 채우고 문제를 풀면 원하는 숫자를 지워나가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성경문제, 국가의 수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삼 빙고를 외치는 아이들은 몹시 흥분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지식을 마음껏 뽐내며 보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주는 명절을 앞두고 있던 주라서 어른 예배에 함께 하였습니다.

넷째 주는 ‘민속놀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하는 윷놀이를 응용한 브루마블인데요. 선생님들이 말이 되어주고 아이들은 세팀으로 나누어 윷을 던져 나오는 데로 이동하고 중간중간 미션을 진행하며 말이 먼저 나오면 이기는데 중간에 말이 되돌아 가기도 하는 게임입니다.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도 기승이고 일교차가 큰 요즘 우리 친구들도 성도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석명절 삼삭전과
아침상아이고
석구들이 둘러앉아
맛나게 먹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
다온이가 추석별 선물신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최은주 집사)



추석에 시댁에서
송편을 빚었어요
아름다운 송편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구요
하물이나 추석이 오든 말든
포크레인 놀이 꼭 빠져있네요
(김소현 군살)



이모 저모



추석에 남편과 둘이서
제주도 다녀왔어요
결혼기념일
그음이졌거든요
남편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수현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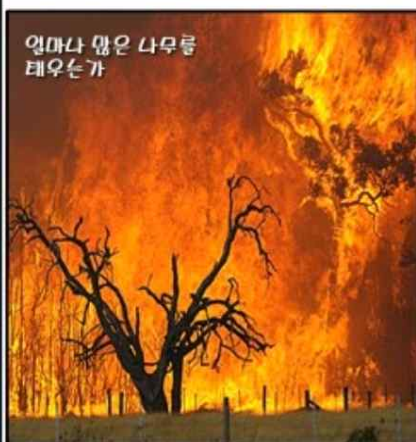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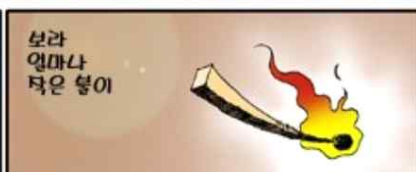
연휴동안 집에서
소꿉이와 함께
집콕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아기들에게
과자와 함께
선물했습니다
(김정임 집사)

엄마와 맛난
추석음식 만들었어요
새우전도 하고
꽃이전도 만들었습니다
(강에서 청년)



우리가족 추석명절 ~~
맛있는거 차려먹고
함께 산책하고
그렇게 보냈네요
(이영주 사모)

* 여는 곧 불이요... - essay.209 -



* 여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누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 3:4~6)

특린 그림 찾기 틀린곳은 5곳



성경퍼즐

				1 향		2 고		
			3 선					
		4 회						
	5 소					6 교	7	
8 폭							9 요	10
								물

가로

1.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덩치가 엄청나게 큰 0000였을 거야.
3. 축구를 잘하면 축구 00, 수영을 잘하면 수영 00, 우리는 성경 00!
4. 사장님보다 높은 사람은 00님! 목사님 보다 높은 사람은 하나님!
5.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먼저 자기 00를 해야겠지?
6.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의 노래는 찬송가, 그럼 학교의 노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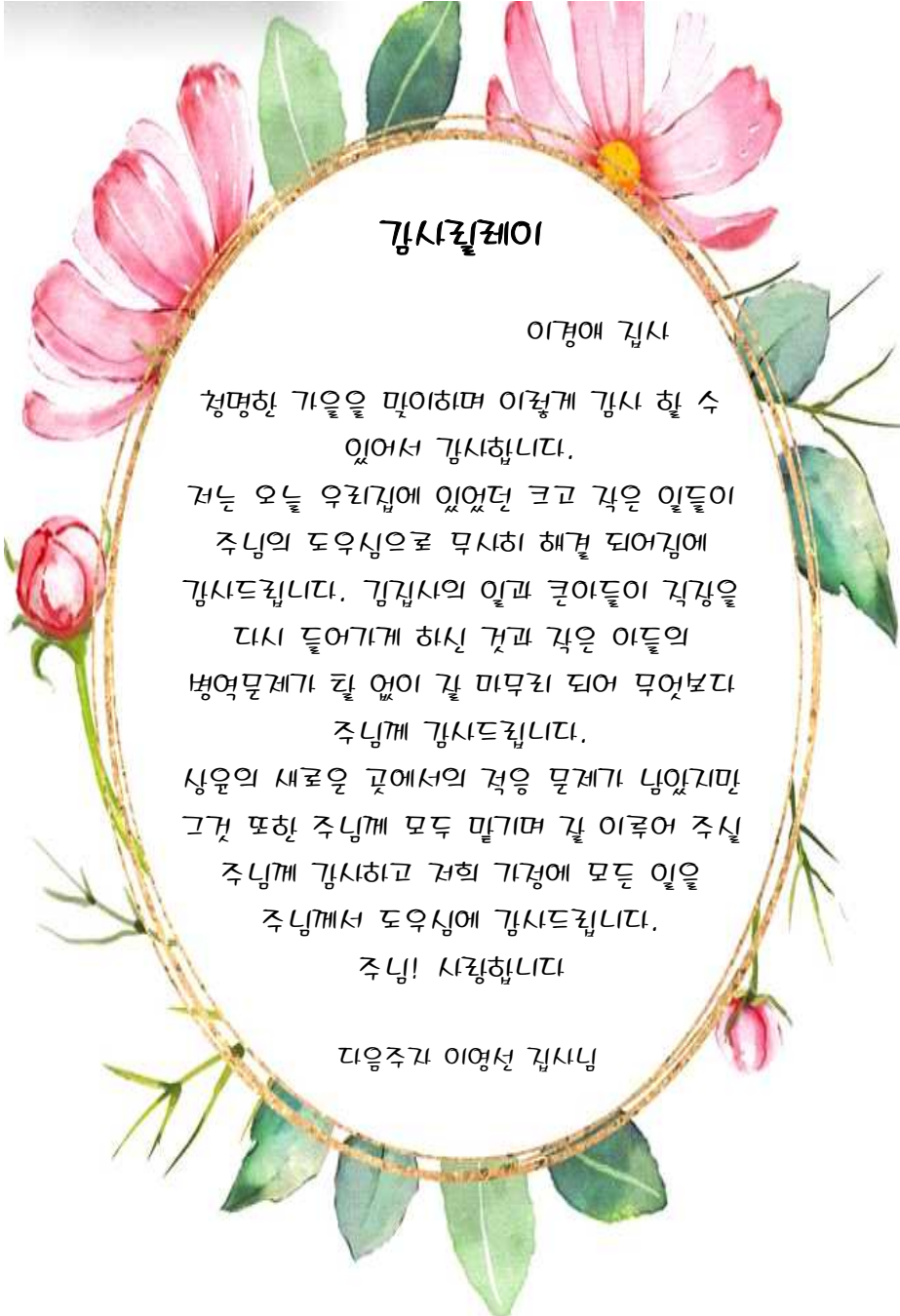
8.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배를 타고 도망가자 00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뻔 했단다.
9. 고래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로

1. 몸에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향기로운 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00를 안 뿌려도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2. 초등학교, 중학교 다음은?
3. 요나가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했을 때 배의 우두머리인 00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배가 뒤집힐까 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단다.
4.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00시키려고 요나를 보내셨어.
5. 날씨가 좋은 날 도시락 싸서 야외로 00이나 가 볼까? 찬송가 부르면서 게임도 하면 정말 재밌겠다.
7.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유행하는 00도 많이 부르고, 영어로 된 팝송도 많이 부르면 정신건강에 아주 좋단다.
8.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00가 아주 유명한 단다.
10. 산에서 캐낸 00을 잘 씻어서 참기름과 깨로 양념해서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겠지?

<지난호 정답>

				향							
				아							르
			엘	리	야						호
			리		호	우	주	의			보
		제	사	장		상					함
	계	단				승					
	약					배					
유	서										
대											



이영선집사

이경애 집사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며 이렇게 감사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집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해결 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김집사의 일과 큰아들이 직장을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과 작은 아들의
병역문제가 될 없이 잘 마무리 되어 무어보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운의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 문제가 남아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 모두 맡기며 잘 이룩어 주시길
주님께 감사하고 저희 가정애 모든 일을
주님께서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주까 이영선 집사님

<유머>

할머니들의 끝말잇기

서울 할머니와 경상도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만나
끝말잇기 놀이를 시작했다.

서울 할머니 : 계란

경상도 할머니 : 란닝구(런닝셔츠)

서울 할머니 :

경상도 할머니 : 와예?

서울 할머니: 외래어는 쓰면 안돼요.

경상도 할머니 : 그라운 다시 하입시더.

서울 할머니 : 타조

경상도 할머니 : 조~오 쫄가리(종이쪽지)

서울 할머니 : 단어는 한 개만 사용해야 돼요.

경상도 할머니 : 알았심더. 다시 해보소.

서울 할머니 : 장롱

경상도 할머니 : 룡갈라묵끼(나눠 먹기)

서울 할머니 : 사투리도 쓰면 안돼요.

경상도 할머니 : 그라마 함마(한번만) 더해 봅시더.

서울 할머니 : 노을

경상도 할머니 : 을라!(아이)

서울 할머니 : 야야! 집어치워!



따뜻한 실화 이야기

나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컴퓨터 장사를 하고 있다. 얼마전 오후 8시경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아는 사람 소개로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는 경상도 칠곡이라는 곳이에요~ 딸애가 6학년인데 지금 서울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중고 컴퓨터라도 있었으면 해서요"

40~50대의 아주머니인 것 같은데 통화 내내 기억이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 적당한 물건이 나오거든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쓸만한 중고 컴퓨터가 들어왔다.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여 딸 사는 집 주소를 알아서 그 집에 도착하자 다세대 건물 안쪽 자그마한 샤키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다. 집안에는 악세사리를 조립하는 부업거리가 방안 가득 쌓여 있었다. 지방에서 여인이 보내는 생활비로는 넉넉치 않은 것 같았다.

"아! 컴퓨터다"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는데 그 사이 6학년 딸애가 들어와 컴퓨터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저씨 고마워요"

하며 마치 내가 컴퓨터를 구해준 은인인 것처럼 고마워했다.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였다. 할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니 엄마가 사준거여?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컴퓨터도 재미있게 해야 된다. 어여 학원에 다녀와라"

아이는 ‘

'네'

하고는 후다닥 나갔다. 설치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나서는데 버스정류소에 아까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어디로 가니? 아저씨가 태워줄께"

주저할 만도 한데 아까 봤던 아저씨라 마음이 놓이는지, 아이는 씨익 웃으며 대답했다.

"하계역이요"

가려던 방향과는 반대였지만 태워다 주기로 했다. 거리로 보면 집과 학원은 너무 먼 거리였다.

십 분쯤 갔을 때 아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했다. 패스트 푸드점이 보이길래 차를 세웠다.

"아저씨 그냥 가세요?"

아이는 이 한 마디를 남기고는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기다려서 태워다 주어야지 생각하며 무심코 조수석 시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조수석 시트엔 검붉은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웬? 피가 묻었지?

그때 갑자기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났다. 6학년 첫 생리인가? 직감했다. 시트를 적신 걸 보니 속옷과 바지도 다 버렸겠구나. 차에서 내리며 당황하던 아이의 얼굴이 곱혔다.

당장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마 처음이니 놀라서 허둥대며 어떻게 할지 몰상 짓고 있을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 펼쳐졌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아이가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텐데.....차에 비상등을 켜고 속옷가게를 찾았지만 주변에 없었다. 지나왔던 변화가가 생각났다. 마음은 조금한데 별별 생각이 다 났다. 첫 생리 때 엄마가 옆에 없는 아이가 몹시 짠했다. 청량리역 근처에서 속옷가게를 찾았다. 사이즈를 알 도리가 없어 제일 작은 것부터 위로 두개 사이즈를 더 샀다. 속옷만 사서 될 일이 아니었다. 아이 엄마에게 알릴까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오히려 마음만 아파할 것 같아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집사람에게 전화했다.

"지금 택시 타고 청량리역으로 와. 아니 그냥 오면서 전화해"

"왜 무슨 일인데?"

자초지종을 말하자 마자 집사람이 알았다 하더니 택시 타고 빨리 온다고 했다. 아내가 구세주였다. 그러면서 아내는 다급히



"약국 가서 생리대 xxx 달라고 하고, 그거 없으면 〇〇〇달라고 해. 속옷은?"

"샀어"

"치마도 하나 사고, 편의점 들러 아기 물티슈도 하나 사?"

아내의 일사불란한 지휘 덕분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중간에 아내를 태워 건물로 급히 갔다.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갔을까? 없으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다. 시간이 꽤 흐른 것 같기 때문이었다. 아이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세칸 중 한칸이 잠겨 있었고.

"애 있니? 아까 컴퓨터 아저씨네 아줌마야~"

말을 건네자 안에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네~~" 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그 안에서 혼자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평범한 가정이라면 축하받으며 조촐한 파티라도 열었을텐데... 콧잔등이 찢혀 왔다.

그 좁은 곳에서 어린애 혼자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의 문자가 왔다.

"옆에 꽃가게 보이던데, 꽃 한다발 사와"

이럴 때 어떻게 축하해야 하는지 몰라서 보이는 중에 제일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왔다. 패스트 푸드점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데, 아이와 아내가 나왔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붙어있었다. 아내를 처음 보고서 멧쩍게 웃다가 챙겨간 것들을 보고서 막 울기 시작했었다.

아내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보였다. 저녁도 먹여서 보내고 싶었는데 아이가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아내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집 사정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컴퓨터 얼마에 팔았어?"

"22만원"

"다시 가서 주고 오자"

"뭐?"

"다시 가서 계산 잘못됐다고 하고, 할머니한테 10만원 드리고 와"

중고 컴퓨터값이 내렸다는 등 적당히 둘러대면서 10만원을 드리고 왔다.

그날 밤 열한시 쯤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기 칠곡인데요. 컴퓨터 구입한..."

이 한마디를 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아내도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감사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제가 하는 일에 혹시라도 불편함을 주실까 봐 극구 혼자 사는 것이 편하시다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매번 걱정되지만, 저는 교회에 목사로 있다 보니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뵈고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밥 먹고 가라."

매번 하는 말씀인지라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밥을 먹고 나오기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훌쩍 넘은 저로서는 어느덧 어머니의 밥상보다 아내의 밥상이 입에 잘 맞기에 거절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 번 어머니의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혼잣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아한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밥을 먹고 가는 것은 저인데 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요?"

어머니는 그런 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겠니. 아직 내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지..."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몸을 가누기가 힘든 데도 자식에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무언가를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저 감사하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머니의 감사'입니다.

오늘의 명언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에게 잃은 것을 한탄하는 시간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부족할 뿐이다. - 헬렌 켈러 -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1. 몇 일(X) → 며칠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몇 월’에 맞춰 ‘몇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소리나는대로 ‘며칠’이라는 한 단어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2. 된소리 관련

깎두기(X) → 깎두기 싹둑(X) → 싹둑 법썩(X) → 법석

'ㄱ, 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ex. 짹짹하다, 씹씹하다)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3. 'ㄴ'의 표기

으레(X) → 으레 케케묵다(X) → 케케묵다 째째하다(X) → 째째하다 돌맹이(X) → 돌맹이

'으레, 케케묵다'는 단모음화한 형태로 표기하고, 'ㄴ, ㄷ'의 표기와 헛갈리는 경우도 따로 알아두도록 합니다.

4. 룰? / 율?

백분룰(X) → 백분율 실패룰(X) → 실패율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룰’은 ‘열, 율’로 적습니다.

성공룰, 합격룰

5. 두음이 아닐 경우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원음대로 표기합니다.

남여(X) → 남녀 낙뇌(X) → 낙뢰 급냉(X) → 급랭

냉냉(X) → 냉랭 생노병사(X) → 생로병사

단, 합성어의 경우 각 형태소의 첫 음 모두를 두음으로 취급하는데요.

사상누(루X)각, 회계연(년X)도, 남존여(녀X)비 등이 있습니다.

6. 그 밖의 소리 나는대로 적는 단어

늑그막(X) → 늑그막 끝트머리(X) → 꼬트머리

늑수그레하다'는 '늑수그레하다'가 아닌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7. 헛갈리는 단어

넓다랄다(X) → 널따랄다 넓직하다(X) → 널찍하다

얇다랄다(X) → 알따랄다 짹다랄다(X) → 짹따랄다

결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대로 적습니다.

시사용어 Briefing

푸소(FU-SO)

FU= fill up(가득 채우다), SO= stress off(스트레스를 날려버리다.)

Fill Up+Stress Off)의 4개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

기쁨과 이로움은 가득 채우고 스트레스는 날려버린다는 뜻.

전남 강진의 푸소 체험(시골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며 농촌 생활 체험하기)
이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음.

푸소라는 말이 전라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를 푸소, 긴장을 푸소, 뭉친 근육을 푸소. 안 좋은 관계를 푸소.’ 등과 관련되어 친근감을 주는 언어가 됐다.

매너리즘((mannerism)

매너리즘은 일반명사로는 '습관적 반복, 상투적인 모방, 진부한 기교' 등을 일컫는 말로 새로운 창조력이 상실되었다는 부정적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나 고유명사가 되면 달라진다. 건축에서 매너리즘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양식을 지칭한다.

0.5인 가구

잡은 여행,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1인 가구를 가르키는 말이다.평소에는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생활하다가 주말에 본집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0.5인 가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0.5인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러 인해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온택트

비대면 접촉 방식을 말하는 언택트와 온라인의 합성어로 외부인의 연결을 추구하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뜻한다.

드보라

뜻 : 벌



야곱의 처 리브가의 유모(창 35:8).

드보라는 "벌"이라는 뜻이다. 오늘 소개하는 드보라는 여사사 드보라가 아니라 라반의 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할 때 따라온 유모 드보라이다. 드보라는 이삭의 가문에 들어온 아람여자이며 단순한 유모 이상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만큼 충성되고 성실한 여자였다.

몇 년동안 시한부로 유모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양육할 때부터 라반의 가정을 거쳐 이삭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두 가정의 인척이나 가족같이 합류된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와 같았다. 그러므로 그를 부르는 가장 좋은 호칭이 젊어서나 늙어서나 유모였다. 리브가를 양육한 유모요, 에서와 야곱의 양육을 도운 유모요, 나중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과 딸 디나까지 모든 양육을 보살핀 유모였다. 리브가를 위해서는 젖을 먹인 유모였으나 에서와 야곱을 돕고 야곱의 많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돌보아주는 유모였다. 야곱이 메소보다미아의 밧단아람(하란)에서 벳엘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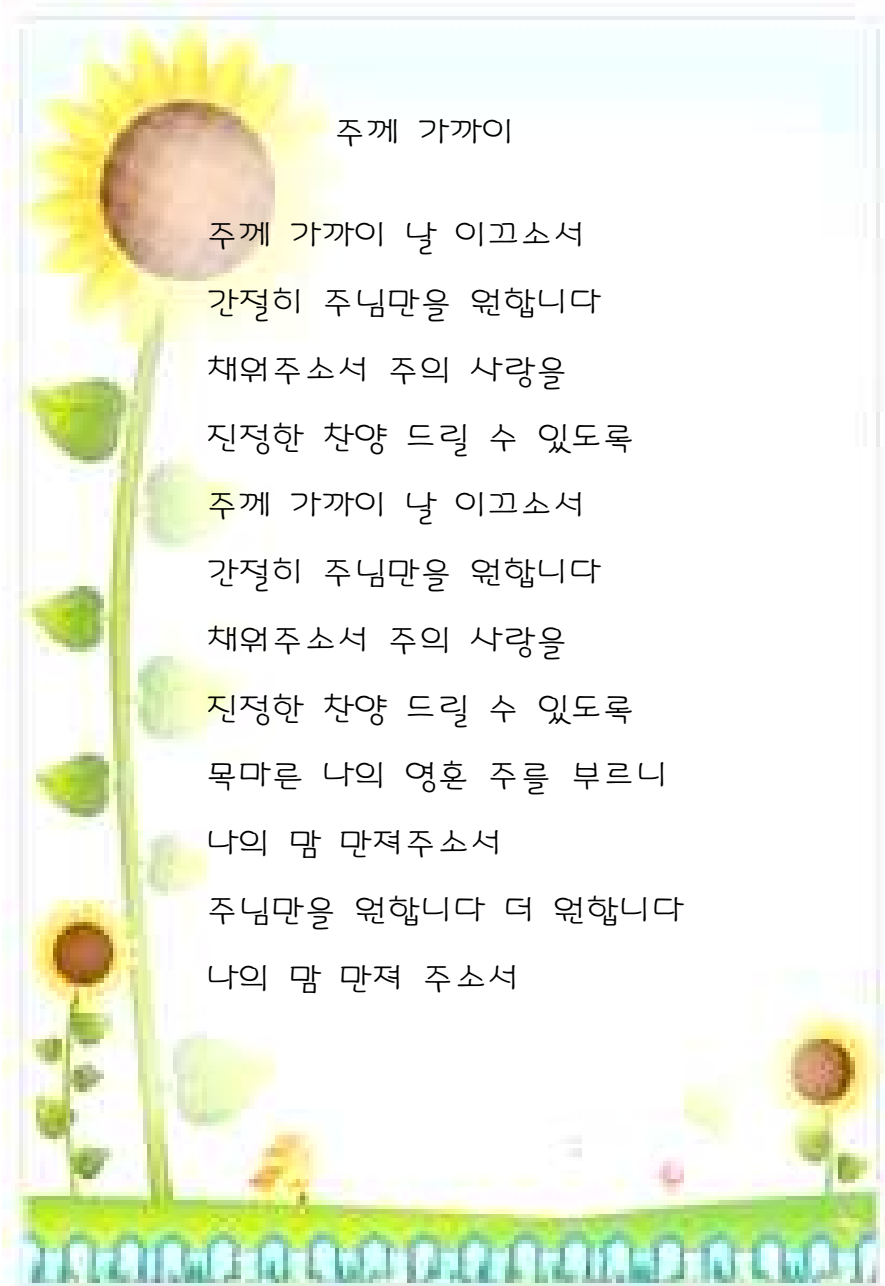
유모는 종과는 달랐지만 주인과 친분이 생기고 서로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 평생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가정의 자손 몇 대를 거느리며 유모와 양모와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였다. 드보라가 1백55세에 세상을 뜨자 벳엘 상수리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러 기념했는데 "곡하는 나무"라는 뜻으로 야곱이 드보라를 잊지 못하는 표가 됐다.

▷ 교훈과 적용 ◁

첫째,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은 법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다.

둘째, 충성된 헌신과 봉사는 혈통과 가족의 조건을 뛰어넘는

더 좋은 가족의 인연이 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 이달의 교회소식

1. 헌신예배 / 1집사회 - 10월 3일
2. 성전밝기 기도운동 / 10월 4일~16일, 매일
3. 교회창립감사예배 / 28주년, 10월 17일
4. 가을여행 / 10월 18일, 청풍호케이볼카, 문경새재
5. 헌신예배 / 율동단 - 10월 30일

● 공지사항

1. 10월 생활실천표어 / 네게 무엇이 있느냐?
2. 10월 신앙서적 / 짐은 가볍게 '맥스 루케이도' 저
3.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 유명민 유진경 유진희 이연우 장원준

● 이달의 교우소식

1. 첫돌감사예배 / 김다은아동(김성광.유혜진 권찰) - 10월 16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윤경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